

# “올 수능 많이 쉬웠다”...국어·수학 만점자 1000명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자 통합수능 이래 최다...영어 1등급 비율 상승  
사탐은 9개 과목 중 6개 작년보다 어려워...오늘 개인별 성적표 통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 영역 만점자가 각각 1000명을 넘을 정도로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과 진학부장협의회, 입시학원가의 분석대로 작년보다 쉬운 수능이었던 만큼 상위·중위권 대학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라 각 대학별 탐구과목 변환표준 점수 발표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지난해 1명뿐이었던 전체 만점자도 11명이 나왔다. 광주에서도 가채점 결과 1문항 틀린 수험생이 3~4명으로 알려져 실제 만점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보면 국어·수학 모두 난도가 작년보다 대폭 낮아졌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지난해 150점보다 11점 내려갔다.

어려웠던 6월 모의평가(148점)보다는 9점 하락한 반면에 쉬웠던 9월 모의평가(129점)보다는 10점 올랐다.

난이도가 널널 두 번의 모의평가 이후 난이도 조절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결과적으로는 중간 수준에서 출제된 셈이다.

국어 만점자는 1055명으로 64명에 그쳤던 작년의 16.5배나 됐다.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작년 수능

148점보다 8점 떨어졌다.

올해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6월(152점)보다는 9월(136점) 수준에 조금 더 가까웠다.

만점자는 작년 612명의 2.5배인 1522명이었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는 국어와 수학 모두 131점으로 작년보다 각 2점씩 내려갔다.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2%(2만8587명)였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작년(4.71%)보다 1.51%포인트 올랐다.

탐구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구 65~69점, 과학탐구 65~70점, 직업탐구 65~68점이었다.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활과 윤리가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와 법이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작년보다 9개 과목 중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를 제외한 6개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랐다.

과학탐구에선 화학Ⅱ가 73점으로 가장 높고, 화학Ⅰ이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오른 과목은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이었다.

직업탐구는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상업경제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와 인간 발달이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과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 11점, 과학 8점이었다. 작년엔 사회 10점, 과학 12점이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국어,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변별력 크게 약화돼 상위권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점수 분포도로 볼 때 대학별 과목 가중치,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방식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별 성적표는 6일 통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2025학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 ( )는 최고점

등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1	131(139)	131(140)	90	40
2	125	123	80	35
3	117	117	70	30
4	107	110	60	25
5	96	96	50	20
6	84	78	40	15
7	72	72	30	10
8	63	69	20	5
9	63미만	69미만	20미만	5미만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철도노조 파업...호남·전라선 최대 40% 감축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의 영향으로 호남선, 전라선 열차 운행 횟수가 하루 159회에서 110회 수준으로 줄면서 업무, 병원 진료 등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5일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하고 여객열차를 평소의 60~70%의 수준으로, 화물 열차를 평소의 22% 수준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호남선 KTX는 기존 하루 48회 운행했지만, 파업 기간 동안 32회(운행률 66.7%)로 감축 운행한다. 무궁화·새마을호는 기존 49회에서 34회(69.4%)로 줄인다.

전라선 일일 운행 횟수도 KTX는 기존 32회에서 25회(78.1%)로, 일반열차는 기존 30회에서 19회(63.3%)로 축소된다.

코레일은 경력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투입 전 현장실무·자격·법정교육을 마쳤다.

운행 중단 열차 등 안내사항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코레일톡 푸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결제시 사용한 카드 계좌번호로 전액 환불 조치된다.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열차가 운행되지 않으면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시내버스 현금함 없앤다

9일~내년 3월 시범 운영...시민의견 조사 후 도입시기 결정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 2월께 시민 의견조사, 현금 이용률 추이 분석 등을 하고 도입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은 2023년 2.3%, 2024년 9월 기준 2.1%로 감소 추세이며, 현금 정산에 따른 불필요한 운행 지연, 운행 중 거스름돈 교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화 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조합, 노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금 탑승 비율이 높은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학교 등지에서 교통카드 발급 절차와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급처럼 현금함을 운영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현금함을 없애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선불·신용·체크) 결제와 자동이체만 가능해진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에서 선불 교통카드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현금함 없는 버스 본격 운영에 앞서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시기별 맞춤 홍보를 적극 펼쳐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건설현장 1억 상당 공구 훔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구속

전국 건설현장을 돌며 1억여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훔친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야간조소물 집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차례에 걸쳐 전동드릴, 유압절단기 등 1100만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서울·강원·대전 등을 돌며 총 140여점의 공구(1억여원 상당)를 훔쳐 광산구에 있는 자기 집(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구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일부 공구는 고향에 갈 때 가져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